

#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학습열의가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김보라<sup>1</sup>, 정미라<sup>2\*</sup>

<sup>1</sup>한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한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Engagement on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Bo-Ra Kim<sup>1</sup>, Mi-Ra Jung<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eo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학습열의가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J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12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연령( $F=5.52, p<.001$ ), 간호사 직업 이미지( $F=10.2,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r=.563, <.001$ )과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beta=.338 P<.001$ ), 학습열의( $\beta=.195 P=.027$ )로 확인되었고,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35%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전공만족도, 학습열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핵심간호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cademic engagement of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nursing students residing in J provincial and 112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nursing skills with age( $F=5.52, p<.001$ ), Images about the nurse profession( $F=10.2, p<.001$ ).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nursing skills and major satisfaction ( $r=.563, <.001$ ). The factors affecting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nursing skills of the major satisfaction( $\beta=.338 P<.001$ ), academic engagement( $\beta=.195, p<.027$ ), explaining 35% of the variance.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ill be an important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to improve the core nursing skills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cademic engagement,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nursing skills, Core nursing skills

\*Corresponding Author : Mi-Ra Jung(kcc4977@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3, 2023

Accepted October 20, 2023

Revised September 26, 2023

Published October 28, 202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의료 환경의 급변으로 건강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의료 실무 현장에서 최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1]. 사회적으로 능숙한 업무 수행을 구현하는 전문직 간호사를 요구하는 추세는 간호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시키고 있다. 간호학과 학생은 임상 수행 능력뿐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해야 하며, 간호 중재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통합적이면서도 정교하게 학습 후 다양한 임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2]. 오늘날 간호교육 내 임상 수행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KABON)은 간호학과 학생이 졸업 시점까지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학습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임상 상황 속 대상자에게 높은 수준의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핵심간호술 20개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3-5]. 간호교육 현장에서 핵심간호술 항목은 기본간호학 실습, 임상 실습,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 등의 교과목을 통해 저학년부터 졸업 시점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학습하게 되며[6], 간호교육 과정에서 핵심간호술 수행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7].

간호대학생의 높은 전공만족도는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향후 진로에 대한 결정까지 동일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전공만족도란 선택한 전공에 대한 기대치에 만족하는 정도와 주변의 평가를 의미한다[8-9].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업 및 학교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 목표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 학업성취와 대학 생활 적응뿐 아니라 핵심간호술 적용 등 임상 간호교육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11]. 4년간 이론 및 실습 교과 과정을 동시에 해내야 하며, 학생 때의 역량이 향후 간호 실무까지 연계되는 간호학과 특성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간호학은 과학적 지식체를 기반으로 실무 상황에서 구체적인 문제접근을 통해 중재를 적용해야 하는 학문이다[12]. 따라서 핵심간호술 적용 시 필수인 문제해결 능력의 관련 요인으로 학습열의가 있으나[13] 아직 국내 간호 분야에 적용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학습열의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내적으로 이끌어냄과 동시에 학업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력 회복력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와 관련을 보이며[14], 기대와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후 학업 수행을 강화시키는 자기효능감과도 연관이 있어[15, 16]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열의와 다른 변수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핵심간호술을 수행하는 능력은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으로 모든 간호행위의 기초가 되며, 수행에 따른 자신감은 핵심간호술 수행 능력 향상 및 전문직 자아개념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준다[17, 18]. 간호학과 학생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은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6], 다수의 연구에서 학습효능감, 학습전의,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메타인지 등 간호교육 과정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많은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17-20]. 학부생뿐 아니라 나아가 신규간호사가 된 후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실무 상황에서 간호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핵심간호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간호술을 이수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학습열의가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학습열의가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도, 학습열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학습열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을 비교한다.
- 각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학습열의가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핵심간호술 20개 항목의 교육 과정을 마친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였다. 강현철 등[21]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effect size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8, 예측변수의 수 8개(일반적 특성 5개, 전공 만족도, 학습열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로 하였을 때 최소 109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을 10%를 고려할 때 120명 이상이 필요하였다. 총 12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하고 최종 112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전공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하혜숙[22]의 학과만족 도구 중 이동재[23]가 전공 만족 관련 문항만 도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 만족, 사회적 인식, 교과 만족, 교수학생 간의 관계 만족으로 구성된 총 18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하혜숙[22]이 개발할 당시 Cronbach's alpha .92였고 이동재[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0이었다.

#### 2.3.2 학습열의

본 연구에서는 학습열의 도구 중 이자영 등[14]이 개발한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KAE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활기, 헌신, 효능감, 몰두 4개 요인이 각 4항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총 16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자영 등[14]이 개발할 당시 4개 하위 요인의 Cronbach's alpha .80~.89였고 변은경 등[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2였다.

#### 2.3.3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본 연구에서는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간호술 20개 항목에 방순식 등[24] 연구에 근거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방순식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5였고 전현숙[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5였다.

###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8월 중순~2023년 9월 초까지 시행하였다. J도의 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님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 후 허락하에 시행하였다. 핵심간호술을 모두 이수한 해당 학과의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Google 설문지를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익명성 보장 및 코딩화, 중도 포기 및 폐기 방법 등을 설명 후 동의 버튼을 누르면 설문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 학습열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과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남학생은 14명(12.5%), 여학생이 98명(87.5%)이었다. 연령은 20대가 76명(67.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지난 학기 학점은 3.5-3.99점이 47명(41.9%), 3.0-3.49점이 42명(37.5%), 4.0점 이상은 16명(14.3%), 3.0점 이하는 7명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직업 이미지는 ‘긍정적’ 70명(62.5%), ‘보통’ 39명(34.8%), ‘부정적’ 3명(2.7%)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지원동기는 ‘높은 취업률’ 62명(55.4%), ‘주변 권유’ 38명(33.9%), ‘본인 선택’ 12명(10.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4(12.5)
	Female	98(87.5)
Age (year)	20's	76(67.9)
	30's	22(19.6)
	40's	9(8.0)
	50's ≤	5(4.5)
Academic achievement	4.00 ≤	16(14.3)
	3.50 ~ 3.99	47(41.9)
	3.00 ~ 3.49	42(37.5)
	>3.0	7(6.3)
Images about the nurse profession	Affirmative	70(62.5)
	Moderate	39(34.8)
	Negative	3(2.7)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rate	62(55.4)
	Recommendation	38(33.9)
	Wanted	12(10.7)

3.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학습열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대한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평균은 4.01±0.78점이었으며, 학습열의의 평균은 3.58±0.94점,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평균은 4.06±0.67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academic engagement, core nursing skills performance confidence** (n=112)

Variable Satisfaction	Range	M±SD
Major satisfaction	1-5	4.01±0.78
Academic engagement	1-5	3.58±0.94
Core Nursing Skills Performance Confidence	1-5	4.06±0.6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에서는 연령(F=5.52, p<.001), 간호사 직업 이미지(F=10.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core nursing skills performance confid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F(p)
Gender	Male	4.02±0.50	-.24 (.816)
	Female	4.06±0.70	
Age (year)	20's	3.99±0.59	5.52 (p<.001)
	30's	4.30±0.76	
	40's	3.64±0.83	
	50's ≤	4.90±0.07	
Academic achievement	4.00 ≤	4.37±0.62	2.46 (.067)
	3.50 ~ 3.99	4.11±0.70	
	3.00 ~ 3.49	3.95±0.65	
	>3.0	3.66±0.52	
Images about the nurse profession	Affirmative	4.27±0.61	10.2 (p<.001)
	Moderate	3.70±0.64	
	Negative	3.82±0.68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rate	4.05±0.71	1.97 (.145)
	Recommendation	4.18±0.64	
	Wanted	3.74±0.52	

3.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학습열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상관관계

전공만족도는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r=.563, <.001)과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major satisfaction, academic engagement, core nursing skills performance confidence** (n=112)

Variable	Core Nursing Skills Performance Confidence	Major satisfaction	Academic engagement
	r(p)	r(p)	r(p)
Core Nursing Skills Performance Confidence	1		
Major satisfaction	.563 (<.001)	1	
Academic engagement	.144 (.269)	.012 (.930)	1

3.5 대상자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간호사 직업 이미지를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주요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 한계 0.754~0.967로 0.1값보다 컸으며, Durbin-Waston 값이 1.98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분산팽창인자(VIF)는 1.03에서 1.87로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beta=.338$   $p<.001$ ), 학습열의( $\beta=.195$   $p=.027$ )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들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대한 설명력은 35%로 나타났다( $F=29.67$   $p<.001$ )(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re nursing skills performance confidence** (n=112)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44.986	5.980		7.523	<.001
Major satisfaction	.338	.100	.353	3.375	<.001
Academic engagement	.195	.087	.218	2.239	.027
Durbin-Waston =2.24, F=29.67 $p<.001$ , Adjusted R2= .35					

#### 4. 논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4.01 \pm 0.78$  점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경숙 등[9]의 연구에서 3.95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유정[26]의 연구에서 3.7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학습열의 평균은  $3.58 \pm 0.94$ 점으로 같은 도구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변은경[13]의 3.13점보다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평균은  $4.06 \pm 0.67$ 점으로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선옥 등[6]의 연구에서 3.75점, 4개 대학교의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양진향 등[17]의 연구에서 2.9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연령( $F=5.52$ ,  $p<.001$ ), 간호사 직업 이미지( $F=10.2$ ,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6,19,20,25]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20대 초반의 현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20-50대 이상의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갈수록 인구 저하에 따른 현역 학생의 감소와 직업 U턴을 선택한 만학도의 간호학과 입학 급증으로 학생들의 세대별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장기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결과로 사료 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연령을 폭넓게 지정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 결과와 20대-30대 이상의 연령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강경숙&고영숙의 연구[9] 결과를 참고하여 간호대학생의 다양한 연령대를 다룬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간호사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다는 결과는 최금희 등[2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긍정적인 간호사의 이미지를 견고히 다질 수 있는 주기적인 교육이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핵심간호술 항목을 모두 배운 후 임상 실습을 1회 이상 이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학년별 학습 유형 및 학습 모드가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12]를 바탕으로 3, 4학년의 학년 구분을 따로 하지 않았으나 학년별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 결과[2,7,17]를 참고하여 추후 연구에 반영하기를 권고한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나 다수의 연구 결과 [7,17,19,20]와 일맥상통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학습효능감, 학습전이, 진로결정 수준 등[8,20]과도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를 참고하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더를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습열의는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에 무리가 있고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특성 및 표본수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되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확대 및 후속 연구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가 상관관계는 있지만 영향 요인으로는 탈락한 다수의 연구 결과 [7,17,19,20]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 동일하게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동욱 등[7]의 연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변수임을 고려하면 유사한 조건으로 반복 연구 시행이 요구된다. 최근 높은 취업률, 다양한 진로의 확대에 의해 적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주변에 의해 떠밀리듯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추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스스로가 전공 선택에 대한 흡족함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그 영향력이 간호교육의 기초인 핵심간호술 수행 시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학습열의가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전공만족도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할 선행 연구가 없다. 그러나 변은경[1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열의는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탐색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학습열의는 스스로를 학습에 끌어들이는 행동으로 학습참여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고 성공적인 학교생활로 연결되는 주요한 지표가 되는 변수이므로 [27], 국가고시 합격이 최종 목표인 간호학과에서 배제할 수 없는 변수임에도 아직은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하기에 활발한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열의가 높을수록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증가함을 나타냈다. 핵심간호술의 점진적 향상을 위해 전공 만족도와 학습열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고취를 통해 핵심간호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핵심간호술을 이수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학습열의가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대상자의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직업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전공만족도와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 중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간호사 직업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학습열의 총 4개를 투입하여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최종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열의가 높을수록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 과정 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열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활용의 기초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핵심간호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을 시도해보길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 E. Jang & S. Y. Kim & N. H. Park. (2019). Factors Influencing Metacogni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idence in the Perform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4), 448-458. DOI : 10.5977/jkasne.2019.25.4.448
- [2] H. S. Jeon. (2018). A Study of Convergence on Experiences of Clinical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569-579. DOI : 10.15207/JKCS.2018.9.11.569
- [3] Th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7).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Core basic nursing skill items. Th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Retrieved from <http://kabone.or.kr/HyAdmin/upload/goodFile/120140117153430.pdf>
- [4] A. H. Jung & M. Y. Moon. (2018). A Study on the Clinical Competence,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Frequency of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during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9), 451-463. DOI : 10.21742/AJMAHS.2018.09.30.
- [5] I. S. Hyun & Y. J. Bae. (2017).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the Self-efficacy, Confid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Lower-Class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 163-171. DOI : 10.15207/JKCS.2017.8.1.163
- [6] S. O. Kim & M. S. Sim. (2018).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2(3), 424-437.

- DOI : 10.5932/JKPHN.2018.32.3.424
- [7] D. O. Kim & S. W. Byun & H. J. Lee. (2019). The Factors Influence of Clinical Competency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85-92.  
DOI : 10.5932/JKPHN.2018.32.3.424
- [8] J. W. Lee & N. Y. Lee & Y. S. Eo. (2018).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311-320.  
DOI : 10.5762/KAIS.2018.19.1.311
- [9] K. S. Kang & Y. S. Ko & Y. S. Ko. (2016). Effects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11(2), 179-189.  
DOI : 10.15715/kjhcom.2016.11.2.179
- [10]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4(10), 873-884.  
DOI : 10.5392/JKCA.2014.14.10.873
- [11] J. A. Kim. (2013). Affecting Factors of Career Satisfaction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3(4), 339-349. DOI : 10.5392/JKCA.2013.13.04.339
- [12] K. J. An. (2007). Learning Styles and Preferred Learning Method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1), 13-22.
- [13] E. K. Byun & H. J. Park. (2023).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9(4), 245-252.  
DOI : 10.17703/JCCT.2023.9.4.245
- [14] J. Y. Lee & S. M. Lee. (201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Academic Engagement Inventory(KAEI).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4(1), 131-147.  
DOI : 10.17927/tkjems.2012.24.1.131
- [15] B.J. Zimmerman & A. Bandura & M. Martinez-Pons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3), 663-676.  
DOI : 10.3102/00028312029003663
- [16] Y. H. Song.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and academic engag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4), 109-128.
- [17] J. H. Yang & K. Y. Park & M. J. Kim & Y. O. Yang. (2012). Factors Influencing the Confidence on Performa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11-2622.
- [18] S. N. Park.. (2008). Factors Influencing Basic Nursing Skil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1), 6-13.
- [19] I. S. Lee & C. S. Park. (2015).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3), 297-307.  
DOI : 10.7739/jkafn.2015.22.3.297
- [20] S. E. Jang & S. Y. Kim & N. H. Park. (2019). Factors Influencing Metacogni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idence in the Perform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4), 448-458. DOI : 10.5977/jkasne.2019.25.4.448
- [21] H. C. Kang & K. P. Yeon & S. T. Han. (2015). A Review on the Use of Effect Size in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5), 641-649.  
DOI : 10.4040/jkan.2015.45.5.641
- [22]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3] D. J. Lee.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Yonsei University, Seoul.
- [24] S. S. Bang & I. O. Kim. (2014). Relationship

among essential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stress from work and work capability of new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628-638.

DOI : 10.5977/jkasne.2014.20.4.628

- [25] K. H. Choi & M. J. Hong & S. H. Kwon. (2019).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ing Fundamental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6(2), 107-116.
- [26] Y. J. Kim. (2020).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8), 265-276.  
DOI : 10.21184/jkeia.2020.12.14.8.265
- [27] H. R. Koh & H. S. Lee & J. H. Kim. (2016).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Adult Learners' Self-Determination, Academic Engagement,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4(1), 101-125.  
DOI : 10.18230/tjye.2016.24.1.101

김 보 라(Bo-ra Kim)

[정회원]



- 2018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2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2년 3월~현재 :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 분야 : 핵심간호술, 기본 간호
- E-Mail : momo5477@hanyeong.ac.kr

정 미 라(Mi-Ra Jung)

[정회원]



- 2013년 8월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현재 :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스마트헬스케어, 웰니스
- E-Mail : kcc4977@hanmail.net